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설립된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 설립경과

2001. 6. 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회통과
7.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공포(법률제 6495호)
9. 24	행정자치부장관 설립위원 10인 위촉
9. 24-10. 24	설립위원회 1차-6차 회의 및 설립준비기획단 활동
10.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인인가신청서 행정자치부 제출
10. 24	박형규 이사장 임명
10.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공포 및 법인설립
11.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차이사회 개최
2002. 1. 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식

○ 임원진

- 이사장 : 박형규
- 부이사장 : 배다지, 성유보, 이해동, 최영도, 함세웅
- 이사 : 김용태(상임), 나병식(상임), 박정훈, 신인령, 안병욱, 정해숙, 조성우, 지은희
- 감사 : 강달영, 정동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서별 사업

사업회 조직은 크게 사무처, 기획관리실, 연구소, 사료관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사무처에 총무부와 기념사업부, 기획관리실은 기획팀과 행정지원팀, 사료관은 기획수집부와 사료관리부, 연구소는 학술연구부와 교육기획부로 나뉘어 있다. 각 부서별 사업의 내용을 소개한다.

1 사무처

“은 국민이 함께하는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사무처는 일반 행정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부서와 기념사업을 관장하는 기념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미래사회의 정신적 동력으로 되살려내고 역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념·추모사업과 정신 계승사업,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원·기여사업, 유적지 발굴 및 조사·보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제 단체와 국민이 함께 하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부 내에는 기념사업과와 연대사업과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에 대한 경험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문을 받는다.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연대,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조직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며 이를 새로운 삶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사업소개

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추모행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28, 3·15, 4·19, 5·18, 부마항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념행사를 추진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았던 민족·민주열사의 추모행사를 실행한다.

나. 민주화운동 사료 전시회

전국의 20여개 지방을 순회하여 민주화운동 사료를 전시함으로써 지역내에 숨겨진 사료를 모으고 지역민들에게는 전시된 사료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경험하여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 각종 민주관련행사와 민주화운동 사료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수시로 기획 전시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다. 민주화운동 유적의 발굴·조사·관리·보존

민주화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가 현재의 구체적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사적을 발굴·복원하여 문화 공간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교훈, 모범사례들이 공동체 삶의 정신적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학술논문상을 제정하거나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며 이달의 민주인사를 선정하여 그 정신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원·기여 사업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고, 연대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해외 관련 단체와도 연대를 도모한다. 이밖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명록 발간 등 정보 제공 사업을 수행한다.

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역사적 재정립과 제도화

6·10 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제정 등 정부수립 이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역사교과서 기술 정정노력 등 역사적으로 재정립하여 민주화운동의 정통성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2. 2002년도 사업

1) 시행 사업

가. 6월항쟁 15주년 기념행사 공동주최 및 주관

119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인사 2002인 추진위원이 '6월항쟁계승반전 평화대회위원회'를 조직하여 6월 2일부터 22일까지 '6월항쟁15주년기념 반전평화대회' 기간으로 선포하고 기념식, 문화축제, 국제포럼, 시민달리기 등 8개의 행사를 공동 실행

나. 기념행사·추모행사 참여

'2·28대구민주운동' '3·15의거'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22주년기념행사' 및 '서울기념행사' 등의 기념행사와 열사추모제 참여



다. 제 관련단체와 연대사업

제 기념사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사업 추진

2) 예정사업

가. 한국민주화운동사료 전국 순회전시회

10월 15일~10월 29일(부산 민주공원 전시관), 11월 15일~11월 28일(전주 세계소리문화의 전당) 등 3곳에서 전시 예정

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부산·마산 민주항쟁 23주년 기념행사 공동 추진
열사추모제 참여 및 열사전집 출간

다. 민주화운동 유적(지) 발굴 · 조사 총괄사업

서울 · 경기지역, 부산 · 경남지역의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조사 정리

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 1주년 기념 문예공모전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한 청소년 독서 감상문 및 일반인 생활문 공모

마. 민주발전 지원사업

민주인사 인명록 발간 및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해외민주인사 초청

2 기획관리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사업회 비전 제시”

기획관리실은 기획팀과 행정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념사업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기획, 예산관리, 전산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기념사업회 비전 제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총괄 수행과 더불어 민주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적 연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의 중 ·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념관은 민주화운동사 전시관과 다양한 문화활동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관, 민주주의 발전을 상시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및 교육센터, 사료관 등을 두어 국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의 공간’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메카로 만들고자 한다.

기념관 건립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사업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국민 모금 등 건립 과정에서부터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민주발전지수평가 사업

우리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부문과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 각 조직의 민주화 정도와 민주주의 실천 정도를 계량 지수화하여 우리사회의 민주화 진전의 구체적 실상을 이해하고, 민주발전의 과제 및 대안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민주발전지수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민주발전지수평가체계 및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연구개발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 각 조직의 민주화 실태를 조사하여 연차보고서를 발간 이를 바탕으로 민주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 기금마련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발굴해 내고, 기념사업회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수익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국민적 기금모금사업을 추진한다.

3 연구소

민주화운동의 정확한 과거 복원과, 이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의 토착화 방안 연구가 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과제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두 번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본 연구소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소는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와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하고,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상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연구부, 그리고 민주주의 적 가치와 이념 및 올바르게 정립된 한국민주화운동사를 전파하고 교육하기 위해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전문 교육기관을 지향하는 교육기획부로 구성되어 있다.



3-1 학술연구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밝힌다”

과거 한국 민주화운동과 이를 둘러싼 제반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밝혀내어 향후 새로운 민주주의 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방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그 의미와 성격 등을 밝히는 조사연구프로젝트를 각 시기·부문·지역별로 기획, 추진한다. 또한 국내, 국제 심포지엄과 학술모임, 발간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민주주의 의식을 높여 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연구총서 발간

한국의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논의와 정책대안 등의 연구 성과를 담은 민주주의 연구총서를 발간한다. 이를 위해 2002년도에는 민주화운동의 주요 부문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2003년 이후에는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 미래방향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민주화운동 연구총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발전정책대안총서'를 연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2. 학술계간지 발간

민주화운동사와 민주주의 관련 논의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대중적 학술계간지를 발간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간행물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학술계간지의 발간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만큼 계간지를 한국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진지한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3. 학술심포지엄 개최

연구소는 국내외 연구자,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연구와 경험을 대중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미있는 논제를 선정,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심포지엄을 통해 민주주의에 관련된 논의가 축적되고, 국내외 관련 인사와의 연대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4. 민주화운동사전 편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주화운동 인명사전, 단체사전, 그리고 주요사건을 담은 사건사전 등의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편찬은 매우 치밀한 준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므로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한다.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어떤 사건을 선정할 것인가, 그 사건의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하여 기본 리스트와 그 내용을 담은 기초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다. 향후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민주화운동을 포괄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을 편찬하고자 한다.

5. 영문번역 시리즈 발간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자료와 국내외 연구 성과를 영문 등으로 번역 발간하는 사업이다. 외국에서 해외학자나 한국연구자들에 의해 한국현대사를 다룬 연구성과들이 부분적으로 출간되어 왔으나, 대중적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영문번역서의 발간 및 배포는 한국인의 민주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민주화운동 일지 및 흐름도 작성

한국 민주화운동의 부문운동별 연표 및 민주화운동 조직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흐름도를 작성, 발간하고자 한다. 민주화운동 연표와 흐름도의 작성은 한국현대사 자료를 정리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긴요한 기초작업의 성격이 지닌다.

7. 학술전문자료실 운영

한국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학술전문자료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자료는 국내외

서적, 국내외정기간행물로 구성될 것이며 향후 기념사업회 자료관리시스템에 통합되어 연구자와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2 교육기획부

“생활 속에 민주주의 구현, 책임있는 민주시민 육성”

교육기획부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우리 사회에 걸맞는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 첫 해인 올해는 2003년도부터 실시될 본격적인 민주주의 교육 연수에 대비한 준비 사업을 계획, 진행 중이다.

앞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교육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특성 있는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민주주의교육 관련 단체 및 개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간의 경험을 상호 발전적으로 집대성하고, 민주주의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과 연수 자료를 개발하며, 이를 토대로 교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교육 연수를 추진하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초 조사 분석 연구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조사·분석하고 연구한 뒤,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향후 발전된 교육 내용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YMCA 등 21개의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실행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교육 활동에 대해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진 구성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실무 책임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 조사·분석·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민주시민교육 시범커리큘럼과 일반 연수 자료 개발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커리큘럼과 연수자료는 단계별, 대상별, 기간별, 분야별로 다양화하고 세분화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민주주의교육의 일반적인 방향과 영역, 범주 내에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범 커리큘럼 개발하고, 모든 연수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일반 연수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일반,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 관용, 평화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는 연수 자료는 관련 활동가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연구팀을 구성, 12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3. 민주시민교육 영상자료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연수생들의 참여와 집중력을 높여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교육용 영상 자료의 개발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녹음,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한 CD를 금년 중에 완성할 계획이다.

4.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민주주의교육 관련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비한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도서 및 자료를 민주주의 일반, 민주시민교육, 관용, 평화, 인권, 기타(교육 영상물 포함)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4 사료관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史料館; Archives)은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의 주춧돌을 놓는 역사 지식정보센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사료를 수집하여 정리, 보존하고 일반 대중과 연구자에게 열람, 활용케 하고자 한다.



정부기록보존소나 국회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물 등 공기록물을 수집하는데 반해 현재 사료관은 대부분 사기록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여 수집과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관은 70만 건의 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모빌랙, 향균·향온·항습시설 등을 갖춘 사료실과 함께 전시설, 열람실 등을 갖추고 장기간에 걸친 수집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 사료수집

가. 일반사료 수집

사료관은 단행본류를 취급하는 도서관과는 달리 온갖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사료수집은 기증이나 캠페인 등을 통한 자연적 수집방법과 단체별, 사건별, 지역별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협정을 맺어 사료를 이관하는 계획적 수집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7만여 건(약 50만 쪽)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그 가운데 1만여 건의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에 대한 등록 및 분류 작업이 완료되었다.

나. 구술사료 수집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 선별하여 구술녹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한국 현대사의 재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증언을 채록하여 사료화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전체적인 한국 현대사를 복원하고 문서사료의 유실과 왜곡으로 인한 민주화운동 역사의 공백과 오류를 바로 잡아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한국 현대사의 정리를 가능토록 할 것이다.

다. 국가기관 및 해외 사료 수집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보고서·재판기록·공소장·항소이유서 등을 수집하여 사기록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입체적인 사료관을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사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할 계획이다.

라. 사료수집 캠페인 전개

범국민적 사료수집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사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료 수집에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사료관리

수집된 사료는 먼저 목록으로 등록되고 '민주화운동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어 사료를 분류, 평가하고 세부사항을 기술하여 민주화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사료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물을 빠르게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는 사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록관리와 전산화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료관리 연구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3. 민주화운동사료관 건립

앞으로 건립될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규모 서고와 열람시설, M/F실 등을 갖춘 '민주화운동사료관'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서 사료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포스터 등 각종 물건 사료까지 5개년간 약 50만 건 정도 기획수집된 사료는 이 최첨단 시설이 완비된 사료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이용될 것이다.

○ 주요기증자 및 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80년대후반 - 90년대초 노동운동 관련 자료 63박스
- 경실련 : 80-90년초반 시민운동관련자료 77박스
- 고 송건호 선생 : 70- 80년대 언론운동, 사회운동 자료 19박스
- 임재경 선생 : 80년대 민중운동관련자료 3박스
- 김춘옥 선생 : 80년대 중반 사회운동자료 및 사진 14박스
- 윤영규 선생 : 80년대말 90년대 초 전교조 등 관련자료 24박스
- 통일맞이 : 80-90년대 통일운동 관련 자료 3박스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노동운동관련 문서류, 비디오, 팸플릿 등 2박스
- 한국교회여성운동연합회 : 여성운동 관련자료 24박스
- 도시연구소 : 빈민운동관련 자료집, 보고서 23박스
- 역사학연구소 : 사회과학서적 및 노동운동관련 자료 14 박스

○ 주요 수집 예정 자료

- 성공회대 민주화운동자료관 : 80-90년대 노동운동, 민중 운동자료 15만건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70-80년대 노동운동, 기독교사 회운동자료 15만건
- 가톨릭농민회 : 70-80년대 농민운동자료 6만건
- 영등포산업선교회 : 70-80년대 노동운동자료 약 5만건
- 인천산업선교회 : 70-80년대 노동운동자료 약 3천여건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자료
- 사회사진연구소, 박용수 선생 등 민주화운동관련 사진 자료
- 민족예술총연합회 자료
- 백범사상연구소 및 통일문제연구소 자료
- 문익환 목사님 관련자료